

시주보

제2525호
2024년 10월 13일(나해)

연중 제28주일
(군인 주일)

재물을 포기하는 성 프란치스코

조토 디 본도네
(Giotto di Bondone, 1267-1337)
1292~1296, 프레스코, 270×230cm
성 프란치스코 성당, 이탈리아 아시시



입당송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 지혜 7,7-11

화답송 | 시편 90(89),12-13.14-15.16-17(◎ 14 참조)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2독서 | 히브 4,12-13

복음환호송 |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 마르 10,17-30<또는 10,17-27>

영성체송 |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부자와 제자의 삶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오늘 복음에서 착하고 신심 깊은 한 남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의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 초대는 좋아하는 것(부, 권력, 명예)을 포기하고, 싫어하는 것(십자가)을 선택하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상기시키시며, 당신을 따름으로써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보상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의 부자 중에서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남자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이나 경제 분야, 또는 정치에서 큰 성과를 이룹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가족의 압력이나 가문의 계승, 재정적 또는 사회적 야망에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공허감이나 절망감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성취나 업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공동체에는 물론이고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이에 대해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관심사가 오직 부와 권력과 명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일명 악덕 자본가나 폭군으로 불립니다.

악덕 자본가의 마음이 이익에 가 있다면, 폭군은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부류입니다. 봉사나 지도력이 아니라, 지배

나 승리(또는 보복)에 관심이 있기에, 폭군은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감추어진 동기는 탐욕과 개인적인 안정이며, 이런 이들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 만한 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곤 합니다. 권력자를 기쁘게 함으로써 자리를 차지하고, 급기야 그 자신이 권력자가 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큰 권력을 쥔 수 있겠지만, 언젠가 성안에 고립되고 머지않아 주변에 친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폭군들은 권력이 있기에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부와 배반에 대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할 기회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더 이상 멀리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독한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결정권과 지배권을 행사하며 아동기 때의 분노를 행동화하는 비뚤어진 카타르시스를 즐깁니다. 우리 사회에는 매일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작은 폭군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힘은 약하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주변에 해를 입힙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들은 종교를 이용해 명예와 권력을 유지했고, 사두가이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부(재물)는 제자 직분을 수행하는 데 방해물이 됩니다. 가난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복음에서 가난은 가난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기 부정보다는 오히려 사도적인 성격에 가까우며, 선교 사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포기하는 성 프란치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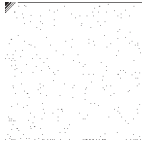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허물어가는 교회를 고쳐라!"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었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아버지의 재물을 팔아 그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권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입고 있던 옷마저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구름 사이로 나타난 하느님의 손과 성인의 알몸을 감싸주는 주교의 망토는 그가 교회의 사람이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주님! 저를 도구로 써 주셔서 찬미와 감사를 올리나이다



권경주 안젤라
카프성모병원 자비의성모마리아성당 봉사자

2016년, 저는 카프에서 전례 봉사자를 모집하는 포스터를 보고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사 중 독서나 해설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중독 병원이라는 장소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 신부님과 면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병동의 오랜 냉담자들에게 짧은 교리와 영적 독서를 통해 나눔을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두려워 “아는 것이 없어서 감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으나, 신부님께서는 “그들은 신앙 면에서 유치원 아이들처럼 순수하니 걱정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내가 곁에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봉사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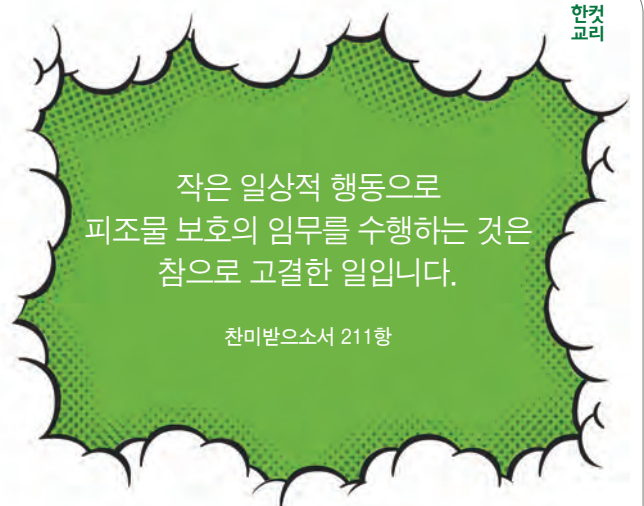
처음 남성과 여성 병동에서 각각 한 시간씩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낯선 환경과 정신병동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오늘로 끝내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제 얼굴에 드러나자 환자들도 경계심을 보이며 굳은 표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마음을 열자 그들도 마음을 열고 환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반복되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버림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한 이들은 봉사자에게라도 작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먹해진 그들의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선생님, 이곳에서 오래 봉사하실 거죠? 저는 중독자라 자주 이곳에 오게 됩니다. 다시 왔을 때 저를 지지해 주던 봉사자가 없으면 제 자신이 더욱 미워집니다. 계속 봉사해 주시면 저를 응원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듣고 저는 중독에 대해 더 공부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봉사를 통해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 사랑과 자비를 더 깊이 깨달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덧 10년째 봉사를 이어오며, 주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이 봉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일임을 깨닫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이 봉사를 이어가며 주님의 도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낫
교리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마르 14,36)



이명제 요셉 신부 | 문화홍보국 부국장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를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겿세마니로 향하십니다. 복음 선포 여정 중에 중요한 순간이면 늘 함께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곁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 기도하십니다.

멀리서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파스카 만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라 하신 말씀이나, 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화가 나신 걸까? 우리가 스승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뭐지?’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기도에 전념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에 마음 깊은 곳이 아려옵니다. 그러나 축제 음식 때문인지 제자들의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쏟아지는 잠을 막지 못한 채 등을 붙이고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마르코는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공포와 번민’에 사로잡힌 모습이셨다고 묘사합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던 이들을 용서하시고 가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던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시며 사랑을 베푸셨을 때도, 위선과 완고함에 사로잡혀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도,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여느 인간과 똑같이 두려움에 짓눌려 기도하십니다.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수난과 죽음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무서웠던 것일까요? 작은 고통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우리네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고통, 그것은 분명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육신이 견어야 할 아픔보다 당신이 사랑하시던 제자들, 그래서 당신의 몸과 피 모두를 내어주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배신감, 나약한 인간의 간교함에서 흘러나오는 비난과 모욕을 견뎌내야 하는 비참함이 주님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제가 마셔야 할 이 수난과 죽음의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마르 14,36 참조) 그렇게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느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나아가 당신 아들이 겪게 될 고통에 당신 또한 함께 아파하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온갖 형태의 굴욕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묵묵히 받아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성심(聖心)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그래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잠에서 깨어나 그분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이 걸으신 구원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 (교회일치 신학)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살다 보면 기다려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 위계가 생겨날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강자 혹은 약자라고 느껴질 때, 수평적인 대화보다는 명령 하달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설렘의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교황 수위권’(Primatus papae)은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위권은 모든 교회 위에 최고의 재치(통치와 규율)와 무류적 교도(신앙과 윤리)를 행사하는 교황의 권한(Pastor aeternus)이라고 강조되어 왔지요.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절대적인 권력 행사로 이해되었고, 가톨릭교회 외부인들에게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에게 부여된 권한이 오히려 분열과 다툼을 야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때부터 이러한 분위기에 변화의 불길이 당겨졌습니다. 성인께서는 수위권의 직무는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황이라는 직책은 우두머리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봉사와 섬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89,94,95항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임기 시작부터 ‘로마의 주교’라는 직함을 사용하시며 형제·교회적 친교에 대한 방향성을 알리셨습니다. 교황님은 회칙에서 동방정교회 총대주교의 가르침을 언급하셨고, 루터교 연맹 지도자들과 일치 공동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그곳 종교 지도자들과 평화의 순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을 환대하고, 다스리기보다 가난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교황님의 행보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일반인의 눈에도 크고 작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일치 행보는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을 직접 걸으면서 수위권의 직무를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는 교황 수위권과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위권 사명의 본질이 일치와 친교에 있기에, 이 권한은 명령이 아닌 시노달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시노드의 역동성 안에서 수행되는 수위권은 더 이상 경직된 분위기가 아닙니다. 백성들 간의 만남에 기대감을 주고,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니까요. <로마의 주교> 4장 참조

교황은 열두 사도 중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로 공동체의 대표성과 함께 재치와 교도의 직무를 가집니다. 교황의 권한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응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치를 지향하는 베드로의 직무는 충분히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황의 첫 번째 임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교회 전체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을 참되게 반영하며 겸손과 연민으로 사는 삶을 지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정과 수용 그리고 사랑



정지원 바오로 신부 | 살레시오회(돈보스코 심리발달연구소)

“이번 주는 어떻게 보냈어?”

“잘 지냈어요.”

“요즘엔 잘 지냈다는 말을 자주 듣네?”

“네... 최근에는 뭔가 제가 서 있는 땅이 조금은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수민이(가명)와 지난 주 상담에서 나눈 첫 대화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19살 수민이는 잦은 자해 및 자살 시도, 회피와 철수 등으로 대학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거듭하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친구였습니다. 당시 수민이는 등과 어깨가 80대 할머니처럼 돌돌 말려 구부정했고 동공은 허무감과 무력감으로 꽉 차 있었으며 눈꺼풀이 너무나도 무거운 듯 힘겹게 깜박거렸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아 위태로웠습니다.

수민이를 만나고 있다면 흠뻑 젖은 솜이불을 진 것처럼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짓눌리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좀 추슬러 보았다 싶었다가도 다음 주에 다시 만나면 공기가 다 빠져나간 튜브처럼 되어 돌아왔습니다. 수민이를 만나는 것은 정말이지 굉장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꾸짖고 싶은 마음도 가끔 솟구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저의 조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력했습니다. 힘들어지는 결과가 뻔한데도 같은 선택을 하는 수민이의 모습을 보는 건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민이는 자신의 아픔에 대해 ‘연기’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아픈 척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픈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째서 아파야만 했는데?”

“특별해져야 했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봐주고 사랑해 주죠. 그리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고요.”

특별해지기 위해, 아니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다 못해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고군분투하는 수민이는 오늘 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숨막히게 많은 계명들을 다 지켜내는 부자 청년과 많이 닮았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뀌서라도 얻고 싶은 중요한 것이었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의 ‘있는 그대로의 인정과 수용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부모와 어른들의 인정과 수용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 ‘내면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해도 행복하고 살맛 나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특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하나하나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주일마다 미사를 꼭 봉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하는 질문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 주간을 ‘월화수목금토일’로 줄여 부르는 우리네 습관에 미루어보면 어색하겠지만, 정답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일월화수목금토’인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인 구약시대 때부터, 하느님을 믿던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에 쉬면서 이 날을 하느님을 기리는 날로 보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창세기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업을 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음(탈출 20,11 참조)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고,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사건(신명 5,15 참조)을 기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보내는 방법은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세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이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히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텐데, 유대인들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탈출 20,10 참조) 두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수 28,9-10 참조)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는 수없이 많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이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금기시하는 모습이 등장하지요.

이제 초대교회에 이르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 같은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되, 기념하는 날을 일요일로 옮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삶에 결정적인 희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멸의 태양이라고 여기며, 원래 태양을 숭배하던 날이라는 의미에서 일요일이라고 부르던 이날의 명칭을,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주일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오랜 전통으로 실천해온 방법이 바로 미사 봉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공로를 기억하는 성체성사야말로 주일을 거룩히 보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마다 출석 도장 찍듯이 성당에 들러 미사를 봉헌한다는 식의 의무적인 차원으로만 주일 미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온통 분심에 가득 차 미사를 봉헌하고 다시 근심 걱정과 파문하리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물론,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고 봉헌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나 자신만의 방법과 시간을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의 결과를 함께 소개합니다. 직업상, 신체적, 환경적인 이유로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다음의 셋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일 미사 봉헌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① 목주기도 5단 ② 해당 주일 미사의 독서, 복음의 봉독 ③ 희생과 봉사활동. (‘부득이한 경우’란, 예를 들어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중한 병으로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 경우와 그런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 직장에서나 가족·친지들과 함께하는 야외 행사나 여행,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10월 13일)은 '군인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57회 군인 주일입니다. 군인들을 사목하고 계시는 군종 신부님들의 노고와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방위에 온 힘을 다하는 일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군인주일 담화문은 서울주요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 볼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박관태 신부	신정3동 본당 주임	휴양
이재경 신부	제18 양천지구장	겸) 신정3동 본당 주임서리
최광희 신부	문화홍보국장	겸) 교구 대변인

위원회 위원 임면

1. 생명위원회 운영위원
면) 김재현 신부

2. 홍보위원회 - 갤러리1898 관장
임) 이영제 신부 면) 최광희 신부
3. 출판검열위원회
임) 박진수(사도요한) 신부, 이상민(바오로, '14서품) 신부

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담당사제 임명

1. 오더 오브 몰타 코리아(Ordre of Malta Korea)
임) 박기석 신부
※ 변종찬 신부 선종에 따른 임명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19일 전덕표 안드레아 신부(29세)
- 1986년 10월 18일 김진하 요한 신부(62세)
- 2001년 10월 14일 박성춘 레오 신부(86세)
- 2001년 10월 19일 김운상 베네딕토 신부(79세)
- 2011년 10월 19일 김자문 네레오 신부(63세)
- 2020년 10월 14일 임태경 루카 신부(85세)
- 2020년 10월 19일 김창만 안드레아 신부(88세)

교구청 알림

제28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대상: 사회교리학과 졸업생, 관심 있는 신자
주제: '이주민 ·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
때, 곳: 10월28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홈페이지(<https://catholicjp.or.kr>)
문의: 02)727-2249, 2431 정의평화위원회

제67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때, 곳: 10월17일(목) 11시,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강당(명동)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024 중고등부 학생 피정(학교사목부)

주제: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상: 중고등부 학생 누구나(선착순 45명)
때: 10월25일(방과 후)~27일까지
곳: 용인 새갑 영성의 집 / 문의: 02)742-4151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ycc.or.kr/cell)

민족화해위원회

1) 1438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0월1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신의주 본당 10월1일(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화해미사가 취소되었으나, 주보에는 하는 것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 10월 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후원회원과 함께하는 가을소풍'으로 대체합니다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안내

1) 10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집전: 이창영 신부(msc)
때, 곳: 10월19일 매일 세번째(토) 10시(목죽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2) 2024년 세계자살유가족의 날 기념행사
때, 곳: 11월16일(토), 명동성당 코스트홀
대상: 자살유가족 및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접수: 홈페이지(3079.or.kr) 공지사항 참조
행사: 1부(10시 미사) 오승원 신부(본부장), 2부(11시 특강) 정혜신(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개최 안내

주제: '노년기 여성의 영성 2-비움, 채움, 삶'의 완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때: 11월5일(화) 오후 2시~5시 / 문의: 02)460-7641
곳: 서울대교구청 신관 5층 501호실

2024 토요 성모신심 강의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내용: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때, 곳: 매주(토) 15시~16시, 가톨릭회관 205-2
2025 루르드 8월 피정 강의: 조창수 신부(8월23일~30일)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선옥 개인전: 1전시실
이종석 개인전: 2전시실
2024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선정작가 박해나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9일(수)~17일(목)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5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청기간: 10월14일~12월14일
접수방법: 일반 우편 또는 이메일(cafi@cbck.kr)
문의: 02)460-7533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알림마당-소식 참조

평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영성강의

때: 10월28일~11월18일 매주(월) 19시30분~21시(4주)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회비 없음) / 문의: 02)777-2013
주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
참가 신청: 구글 폼으로 10월20일(일)까지 접수
홈페이지(<https://forms.gle/ukSXvEydhd7hwZ57>)

1강	10월28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모신심영성 / 조동원 신부(가톨릭신학대학 교수)
2강	11월4일(월) 오후 7시30분~9시 현대 영성가 토마스 머튼과의 만남 박재찬 신부(베네딕토회 왜관 본원장)
3강	11월11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와 영성 기경호 신부(작은형제회 한국관구장)
4강	11월18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 이냐시오 성인의 생애와 영성 이규성 신부(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장)

온라인 전례학교

대상: 전례봉사자 / 때: 11월1일~30일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수강 방법 추후 안내)
회비: 2만원(10월25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5학년도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인원: 미술계열 1학급, 여학생 13명
지원자격: 미술에 열정과 꿈이 있는 중학교 졸업예정(검정고시합격)자 / 원서접수: 11월11일~12월9일
문의: 070-8891-3831 교무실, 031-832-9988 행정실
홈페이지(www.flowerdaymorning.com)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2024 '가톨릭 50+ 성경 봉독 학교' 교육생 모집

내용: 성경 봉독을 위한 발음, 발성, 호흡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 / 대상 및 인원: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15명(선착순 마감)
때: 11월6일(수)~27일(수) 13시30분~15시(총 4주)
곳: 교구청별관 523호 / 회비: 5만원
신청기간: 10월27일(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사목국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문의: 02)727-2385, 6 /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용: 말씀과 그림 안에서 예수님과 친해지기, 이태리어 배우기, 우울과 불안 강좌 외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때: 10월19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특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강사: 서경숙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성모신심 피정(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10월21일(월) 9시10분 ~ 낮 12시 / 강의, 미사
 곳: 가톨릭회관 3층 / 강사: 김석훈 신부(인천교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영성과 함께하는 몸 비우기(도미니코 수도회)

영육간의 건강을 효소로 다스리는 피정
 때, 곳: 12월6일~9일, 일만위 순교자 피정의 집(강화)
 회비: 42만원(효소비 5일분 포함) / 문의: 010-9363-7784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11월29일~30일
홍성남 신부와 제주교구	12월16일~19일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0월15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10월22일 이상기 회장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1월8일~10일, 12월20일~22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11월23일~24일
영신수련 8일 피정	2025년 1월3일~12일(9박10일)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피정 및 강의

1) 영신수련 대침묵 피정 / 문의(접수): 02)3276-7794

12월28일(토)~2025년 1월6일(월)	예수마음배움터
1월16일(목)~25일(토), 2월5일(수)~14일(금)	수원 말씀의 집

2)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희망의 순례자들 / 송봉모 신부
 때, 곳: 11월14일(목)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문의(접수): 02)3276-7799(iispress12@gmail.com)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1월1일 10시~15시30분
다네이 영성수련(대침묵)	10월25일(금)~27일(일)
단식 피정	11월25일(월)~29일(금)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수)~14일(토)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노베나 기도	11월2일(토)~10일(일)까지 9일 동안
신청	미사·위령기도 봉헌해드립니다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무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이탈리아 성지순례(성모승천수도회)

곳: 밀라노, 아시시, 시칠리아, 로마 외
 때: 2025년 4월9일(수)~22일(화) / 010-2378-9104

10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10월24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노틀담수녀회 성경통독 모임 '한처음에'(구약)

대상: 관심 있는 신자 15명(선착순) / 회비: 10만원
 때: 11월4일부터 매주(월) 12시30분~16시30분(총22주)
 곳: 노틀담 교육관(북촌로 54) / 문의: 010-8033-4415

3지구 매월 셋째(주)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마진우 신부(마산교구 초전성당 주임)
 때, 곳: 10월16일(수) 12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덕산 압송로 도보순례(덕산순교성지) / 문의: 010-3807-1784

때, 곳: 11월16일(토), 덕산성지~한티고개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 회비: 1인 6만원
 일본: 11월24일~28일, 나가사키~운젠 / 회비: 147만원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때, 곳: 11월1일~3일·11월15일~17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통합사목센터~추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12월7일~9일·12월13일~15일·2025년 1
 월17일~19일, 한라산 눈꽃산행 1월23일~25일·2월8
 일~10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1월3일~6일·11월18
 일~21일·11월24일~27일·12월1일~4일·3월1일~4일·3
 월9일~12일, 연말연시 12월30일~1월2일(한라산·해님
 이·해돋이)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한라산 눈꽃산행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1월7일~9일·11월21일~23일·12월1일~3일·12
 월6일~8일·12월14일~16일·2025년 1월11일~13일
 (한)·1월16일~18일(한), 추자도 포함 11월16일~19
 일·11월25일~28일·3월13일~16일, 연말연시 12
 월29일~1월1일(한라산·해님·해돋이)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i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생활성가 반주법 강좌

때, 곳: 목요일반 매주(목) 19시~21시·금요일반
 매주(금) 10시~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7층 강의실 / 회비: 20만원(8회 기준)
 문의(접수): 010-7244-1312 (강사에게 직접 연락)

홍보주일 담화문 세미나 개최

주제: 교황 담화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소통과 AI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
 때, 곳: 10월25일(금) 14시~17시,
 가톨릭회관(명동) 2층 강당(205·3호)
 문의: 010-8724-2012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성물·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신앙인의 일상 속 글쓰기

김재홍 시인, 문학평론가
 때: 10월16일부터 (수) 19시30분~21시(8회)
 곳: 프란치스코회관 630호 / 회비: 15만원
 문의: 010-2309-4509 가톨릭독서아카데미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
 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없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월~금) 19시~21시40분, 서강대학교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4016-9230 김나린 선생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원서접수: 전기 1차 10월28일(월)~11월28일(목)
 17시, 전기 2차 1월6일(월)~23일(목) 17시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62학점
 (수업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 교회
 법·88학점(수업료의 50%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https://gscl.catholic.ac.kr/gsccl/index.do)

여의도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때, 곳: 11월4일(월)~5일(화) 8시30분~18시, 여의도
 성모병원 본관 4층 강당 / 문의: 02)3779-2552, 2558
 10월25일(금)까지 선착순 00명 접수
 회비: 5만원·현장등록 6만원
 계좌: 우리 1005-500-525250 가톨릭대학교여의
 도성모병원 / 등록 후 취소 불가, 주차 불가
 카카오택배: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2025년 희년맞이 특강·희망을 희망하다

때: 10월24일~11월7일 매주(목) 19시30분(3주)
 곳: 사랑의 힘 지하 강당(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
 역 4번 출구) / 문의: 02)333-9898 한국CLC

1강(10월24일)	시, 희망을 읽다	김기석 목사
2강(10월31일)	철학과 음악, 희망을 듣다	최대한 신부
3강(11월7일)	그림, 희망을 보다	장동훈 신부

모집

부천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문의: 032)340-7335

병원 접수 안내 및 고객 동행 봉사자 20세~68
 세 남녀(병원 업무 관련 전공자 및 대학생 환영)

연탄나눔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대상: 초6학년, 중고등부 청소년 / www.stvin.or.kr
 때: 11월3일 13시~17시 / 문의: 02)926-3440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월)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3006-0810
 오디션: 10월20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2279-0255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오곡: 가톨릭성가 중 1곡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10월17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0월22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봉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0월17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위령의 날 미사

때: 11월2일(토) 오후 3시 / 문의: 02)3147-2402
곳: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0월18일(금) 11시~14시 / 접수 필수
곳: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온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정신적·영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마멜암재단 후원 작은음악회

형의상 음반발매기념 /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때, 곳: 10월17일(목) 19시30분, 청년문화공간JU 다리소극장(동교동) / 티켓: 전석 3만원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접수: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물 참조 / 문의: 031)850-1427

성라파엘상담소 / 문의: 070-4278-7573

우울,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 심리검사
법정 저소득 가정 무료 상담 / 안양(중앙성당) 1만원 · 분당(구미동성당) 2만원 · 서울 목동(파전)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성바오로수도회 레벤복스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주제: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때: 10월24일(목) 14시 / 문의: 010-2557-1361
곳: 성바오로수도회 본원(마야동) / 강사: 이수연 작가

2024년 서울대학교 전례꽃잎이 연구회 제15회 묵상 전시회

주례: 전호엽 신부 / 문의: 010-5236-5493 정은희 회장
개막미사: 10월31일(목)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폐막미사: 11월1일(금) 16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한국가톨릭작곡가협회 '희년'을 노래하다

곳: 도림동성당 / 문의: 010-5074-6842
1) 제24회 성음악발표회: 10월18일(금) 20시
연주: 에토스콰이어 / 지휘: 박선미
2) 제25회 성음악발표회: 10월25일(금) 20시
연주: 루멘챔버콰이어 / 지휘: 정지운

'나팔을 불어 희망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

25희년을 바라보며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5주년 기념 음악회 / 연주: 서울 가톨릭합창단, 부산 가톨릭합창단
때: 11월11일(월) 20시 / 전석 초대
곳: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문의: 010-3211-5195 (문자) 가톨릭합창단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2025년 중립동약현성당 혼인예식

추첨일: 10월20일 오후 3시(안내 후 추첨)
곳: 중립동약현성당 / www.yakhyeon.or.kr
준비물: 교적 사본, 예약금 100만원(카드 불가)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362-1891 / 주의사항-2025년도 1월~3월 혼인예식은 홈페이지 확인 후 선착순 예약 받습니다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순교자현양음악회 초대

제목: 아! 최양업 토마스 2
연주: 가톨릭시니어합창단 / 연출: 심준보
지휘: 이상희 / 반주: 홍정희
때, 곳: 10월19일(토) 16시, 서소문성지 콘솔레이션홀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주최: 성모니카교회음악원·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롤자비의수녀회)

제11회 가톨릭영화제·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1) 제11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24일(목)~27일(일),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전철 4호선 명동역 6·7번 출구)
주제: 조화로운 삶 / 카탈로그: caff.kr/catalog
2) 제11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활동기간: 10월24일~27일 / 사전모임: 10월17일
홈페이지(caff.kr) 참조

유관단체 알림

매제노래 기도모임·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일 세번째(토) 10월19일·11월16일·12월21일 15시45분~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직원 모집

부서: 서울대교구 청소년교 중·고등부
업무: 본당 주일학교 교사 연수 기획 및 연구
대상: 본당 주일학교 및 청년활동 경력자
10월1일~11월8일 이메일(sueungemma@naver.com) 접수
문의: 02)763-7967 /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foryouth.or.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주방 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곳: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분야: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10월20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10월20일(일)까지 접수 / 이메일 문의
제출 서류·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 직원모집 참조

관리국 자산관리팀	건축법규검토, 건축행정, 대관업무 계약직 1명(관련 경력 및 자격증 우대,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생명위원회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터패밀리' 프로젝트 계약직 1명(사업홍보·행정 담당) / 복지·사회공헌사업 운영협자 우대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성모 자헌 애덕의 도미니코 수녀회	10월27일(일) 14시	수녀원(부천)	010-5166-1275
살레시오회	매일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6221-3520 유명일 신부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전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잔프랑코 라바시 지음
성서와함께 | 120쪽 | 1만원
문의: 02)822-0125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24년을 '기도의 해'로 선포하셨다. 기도는 신앙의 숨결이며 그 자체로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이다. 기도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한 부르짖음과 같다. 저자는 2025년 희년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강렬한 영성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역설하며 시편으로 기도할 것을 권유한다.



신간

다시 만나는
구약성서

장 루이스카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84쪽 | 2만2천원
문의: 02)740-9718

《처음 만나는 구약성서》에 이어 구약성서 시리즈의 두 번째 판인 《다시 만나는 구약성서》는 마치 세상의 창조부터 그림을 시작하는 위대한 프레스코화처럼 성서의 역사적 차원을 설명해 나간다. 이 책의 저자는 설화와 성서 주석의 개념을 이해한 뒤에 고대 이야기의 특성과 통찰력을 제시함으로써 구약성서 이야기가 담고 있는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신간

그레초와
성 프란치스코의
어둔 밤이 맺은 열매

즈지스와프 요제프 키야스 지음
도서출판 작음 | 150쪽 | 1만2천원
문의: 02)793-2070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레초에서 주님 탄생을 재현한 사건은 매우 유명하다. 그리고 매년 성탄을 맞아 구유를 제작하는 것은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즈지스와 요제프 키야스 수사는 '어둔 밤'의 비유를 활용하여 성 프란치스코가 그레초에서 구유를 통해 성탄을 재현한 사건을 프란치스코가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으로 해석한다.



신간

성 이나시오가 안내하는
더 진전된 영의 식별
영적 위로

티모시 갤러허 지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 240쪽 | 2만원
문의: 02)3276-7799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의 차이를 설명한 《영의 식별》에 이어, 하느님에게서 오는 위로와 그렇지 않은 위로의 구별을 설명하는 책 《영적 위로》가 나왔다. 이나시오 성인이 영신수련에서 전하는 '영을 식별하는 규칙'을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명쾌하게 해설하는 책이다.



연극

더 드레서

때, 곳: 10월 8일(화)~11월 3일(주일), 국립정동극장
시간: (화~금) 19시 30분, (토·주일·공휴일) 14시, (월) 공연 없음 / 문의: 1577-3363
입장료: 전석 7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 4명 30% 할인

<더 드레서>는 실제 드레서였던 로널드 하워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극본으로 베를린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하였다. 작가의 경험이 담긴 사실적 묘사와 인물들의 살아있는 대사 등 원작이 가진 탄탄한 힘이 연극 무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으로 관객들을 새롭게 찾아간다. 송승헌, 오만석, 김다현 등 관록이 넘치는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인다.



음악회

명동대성당
오르가니스트들의 파이프 오르간
'한낮 음악회'

때: 10월 8일~29일 매주(화) 12시 30분
곳: 명동대성당
문의: 02)774-1784

2024년 명동대성당 한낮음악회가 개최된다. 10월 8일~10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12시 30분에 열리는 이 연주회에서는 명동대성당 4인의 오르가니스트(박준병, 최주용, 김은영, 박민지)가 묵주기도 성월을 주제로 한 오르간곡들과 다양한 곡들을 연주한다.